

() 사업 계획서

사업명			주체	
사업 소개				
사업방향				
사업형태				
실시기간				
준비일정				
필요한일				
사용물품				
예상비용				
내용				
기타				

(여성학/여성운동데이터베이스) 사업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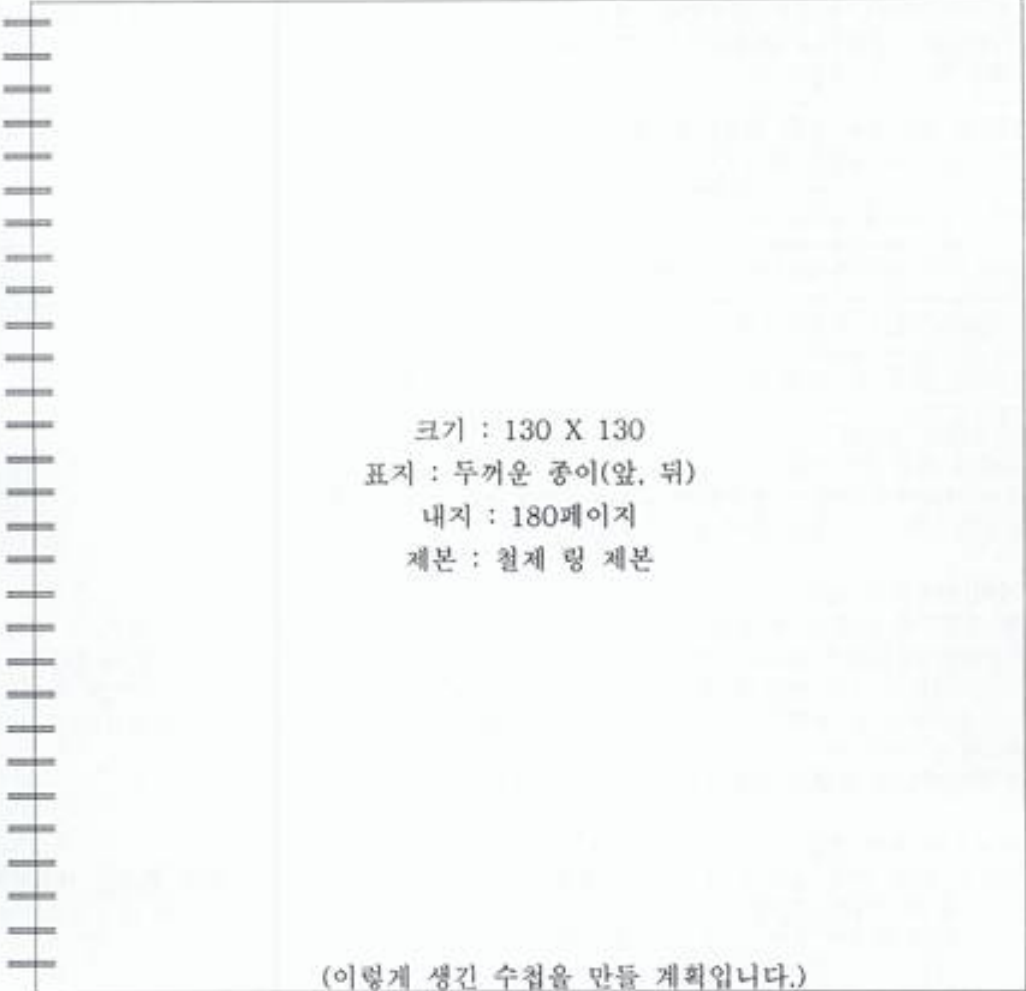
사업명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FEMINARY	주체	온라인매체팀
사업소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여성학/여성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 기능을 강화한다. 시기적인 면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형태의 작지만 알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제한적인 DB지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여성주의의 고민을 담아서 FEMINARY로 한다.		
사업방향	DB가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총여의 다른 사업들(세미나, 강좌, 토론회, 기활학교, 여성노동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형태	인터넷		
실시기간	2월말에 오픈		
준비일정	1, 2월에 웹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끝내고,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개학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필요한일	웹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 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사업 담당할 주체 선정 - 데이터베이스 외형 담당할 사람 : - 자료 수집 및 정리 상황 파악할 사람 :		
사용물품	서버, 도메인(www.ysfem.or.kr)		
예산비용	웹서버, 프로그램 구성		
내용	- 데이터베이스에서 담당할 분야에 대해서 여성운동/여성학 관련 카테고리 작성 - 자료의 형태가 아닌 주제에 따른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여성학/여성운동 카테고리 구성 - 성매매 : 기지촌,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탈성매매, 법률 및 제도 - 여성노동 :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조, 감정노동, 노동의 재개념화, 사건별 정리 - 성폭력 : - 관련 문헌 자료(단행본, 논문, 잡지, 신문기사) 수집 및 카테고리에 따른 정리 - 부가 기능 · 여성학 도서 소개 및 서평 제공 · 세미나 커리 제공 · 여성학/여성운동 사전 · 웹 사이트 소개		
기타			

(1학기 새내기 맞이)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2003 1학기 새내기맞이	주 체	총여를 비롯한 모든 여성 주의자
사 업 개	2003년 여성주의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내기맞이 사업이다. 이것은 총여 시각에서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		
사업방향	단순히 각 단대의 여성자치모임에만 새내기에 대한 부담을 맡기지 말고, 총여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여성주의자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금은 수동적으로 오는 새내기들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새내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존재를 보이는 식의 능동적이고 직접행동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업형태	적접 발로 뛰다. 새내기맞이는 결코 쉽지 않다.		
실시기간	2월 초부터 시작하여 3~4월 중간고사 전까지 총력으로, 그 후에도 가능하면.		
준비일정	1월에 모든 계획을 다 끝내놓고 2월부터 4월 초까지 역점을 둔다.		
필요한일	- 새내기학교 간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섭외하고 교육한다. 가능하면 각 단대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없다면 가능한 그 단대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총여 집행부가-.-+ 미리 중운위에 제안하고, 각 단대 단운위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한다. - 자치단체들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한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기선을 잡아야 한다. - 기획 자보는 새내기들이 좀 진정할 때인 3월 둘째주부터 민주광장에 대문밖만하게 붙인다. 미리 게시판과 자리를 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물품	어떤 것이든 가능한대로.		
예산비용	부스 설치비, 기획 자보비, 대대적인 포스터 비용 등		
내 용	•새내기용 세미나 커리 •각 단대 새내기학교에 들어가기 - 여성주의 세미나를 각 단과대학 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여성주의자 특별간사가 들어가도록 각 단대에 제안을 넣는다. - 새내기학교 기획단 구성 •수첩 나누어주기 - 단순히 책상 하나 달랑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이 때에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내야 한다. •기획 자보 - 새내기를 역점으로 두느니만큼 신선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홍보 - 총여잡지에 광고가 잘 들어가고, 연대 자계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를 쓰는 것이 좋다. •자치단체들과 연계한 행사 - 포스터 거리전(동원처럼), 각 자치단체와 총여 광고를 하는 합동 포스터를 발간한다. •총여 새내기 여성학 학교 - 매년 하는 것과 시기는 같지만,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선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세미나 커리 만들기) •새내기팀 - 필요하다. 특히 여성주의자치단체가 없는 곳의 새내기도 키워야 하기에. •학관 앞에 부스 만들기 •채플 선전전(자료집, 리플렛 등 매체 활용)		
기 타	문제는 바로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고도 여력을 모아낼 수 있느냐에 있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가능한 한 많이 함께 하도록 한다.		

(여학생 수첩)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2003년 여학생 수첩	주 체	총여학생회
사 업 개	새학기 시작전 신입생 오리 때 기존의 학생수첩과 차별화된 '여학생 수첩'을 발행해서 무료 배포한다.		
사업방향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학생으로 대학을 보내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새내기를 대상으로)		
사업형태	수첩 제작(130 x 130 사이즈, 180피, 2000부, 철제링 제본)		
실시기간	2003년 2월 중순까지 제작 완료. 오리 때 배부		
준비일정	1월 말까지 컨셉 및 내용 구성 완료, 2월 초에 제작실무들어감.		
필요한일	예산마련 다이어리 부분 구성 수첩 내용 구성		
사용물품	없음		
예산비용	4,500,000		
내 용	다이어리 부분 2003, 2004년 달력 : 한 페이지씩 총 두페이지 monthly(2003.2~2004.1) : 두 페이지에 한달, 총 24페이지, 학사일정, 여성관련 사건 공백페이지 : 줄 있는거, 줄 없는거(1:2비율) 생리주기달력 : 내용포함해서 총 2페이지 내용 부분 0.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소개 1. 성폭력 성폭력이란? / 반성폭력 학칙, 새터 내규소개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 방법 2. 성교육 3. 학교생활 졸업하기 전에 이견 해보자 학내 단체/모임 소개 여학생처,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성폭력 상담소, 여성클리닉,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모임 학교 전화번호 4. 생활문화정보 여학생 생활정보 : 혼자 여행가기, 가볼만한 식당, 카페, 물건 사기 여성 문화 정보 : 여성학 추천 도서, 영화, 음악, 행사 등 소개 5. 여성관련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개		
기 타	중성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캐릭터		



크기 : 130 X 130
표지 : 두꺼운 종이(앞, 뒤)
내지 : 180페이지
제본 : 철제 링 제본

(이렇게 생긴 수첩을 만들 계획입니다.)

(반성폭력 팀)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반성폭력 팀 2003년 활동 계획	주 체	여량, 늘
사 업 소 개	해마다 총여학생회로 신고되는 성폭력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아마 2003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로서 반성폭력 운동은 보다 책임감 있게 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과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 시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사업방향	크게 연대 테이블을 통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연대회의와 연성뿌연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며, 총여 내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반성폭력 백서 발간 작업이 있을 것이다.		
사업형태	자료집 발간, 교양, 논의 테이블		
실시기간	2003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준비일정	모든 단위의 제안 작업이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함. 이제까지 사건들 정리		
필요한일	내부 교양, 교양 프로그램 만들기,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내 용	1. 반성폭력 세미나 -성폭력에 대한 많은 개념들은 끊임없는 재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부터 다시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 운동은 시작할 수 있겠다. (겨울방학 기간, 교육국과 함께 준비, 진행)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해가 지날수록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성화 되어 가는 부분도 많은 듯 하다. 단대별 교양을 비롯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료집이나 포스터를 비롯한 실무에 위한 실무주체 연석회의와 함께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년간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는 시발점인 만큼 씩씩하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특히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듯 3. 반성폭력 백서 발간 -반성폭력 팀의 주력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001년도에 하려다 못했던 작업이기도 하다. 그 때 이루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듯 하다.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수위로 이야기 해나갈 것인지, 발간 시기는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 봐야겠지요. 4. 단대별 반성폭력 내규 제정 -직접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단대 학생회에 제안을 하고, 의지가 있는 단대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필요하다. 사회대가 준비중에 있으니 다른 단대에도 제안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5. 연성뿌연 - 연성뿌연은 내비엔딩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음... 어서 빨리 모여야겠군!(여휴주체회의 테이블도 비슷하게 꾸려갈 수 있을 듯 하지요) 6. 교수 성폭력 사례 모으기 - 언니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의 발언들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해야한다. 수업시간이라는 공간과 교수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라는 것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체 혹은 자보를 통해서 공개 7. 연대회의 -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학단위와의 연대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교성뿌연에 제안해야할 듯		
기 타	1년 365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빠른 대응을 해야한다.		

(사무국/총무국)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사무국/총무국	주 체	특
활 동 소 개	- 예결산 담당 - 집국회의 준비 및 주재 - 예산자치제 담당 - 학생처 담당(학생회비, 행사지원, 비품 요청) : 공문작성 - 학생회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		
내 용	- 공부수행 중에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지급합니다. (영수증 필히 받아오세요) - 지킴이 시간표 작성		
기 타			

총 수입

지출예상

사 업 명	내 용		비 용
거울 기활 학교	자료집 발행, 기타		
여학생 수첩 발행	수첩 발행		
새내기 여학생 맞이 행사	부스, 리플렛, 선전전		
새터 반성폭력 내규 사업	내규 자료집		
새내기 여성학 학교			
3.8 여성의 날 행사			
여성노동학교 & 데이데이 행사	자료집발행		
반성폭력 백서 발간	자료집 발행		
여학우 새로/다시 배움터			
가을여성제	자료집, 행사		
인터넷 사업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여학생 생활정보 공유 공간 마련		
여성주의 매체발행	잡지 발행		
총여학생회 기획자보			
여성학 강좌/세미나/토론회			
여성주의 문화행사	음향		
총여학생회 북카페	도서 구입, 인테리어		
예자제			
장학금			
물품구입			
외부지원금			
회식비			
앨티비	거울, 여름 2차		
선거지원금			
선거비			
정기구독료	신문		
물값			

(여성노동팀)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여성노동팀 2003년 활동 계획	주 체	미정
사 업 소 개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순위에 서 밀려나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감이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의 문제는 노동 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노동의 문제를 총학생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 할 시점이라는 생각에 여성노동팀을 꾸리게 된 것이다.		
사업방향	여대생 취업 문제라는 좁은 틀 안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인 여성 노동의 문제와 함께, 전지구적 가부장제 자본주의라는 거시적인 틀도 함께 분석단 위로 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팀인 만큼 여성노동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사업형태	여성노동학교, 3.8기획단, 메이데이 기획단, 선전전		
실시기간	3월부터 - 꾸준히		
준비일정	2월 중에 여성 노동학교 준비를 한다. 맷돌 이월을 받고, 상황 파악한다.		
필요한일	내부 세미나,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사용물품	미정		
예산비용	미정		
내 용	1. 여성노동학교 - 아마 3월이나 4월이 될 듯하다. 2. 3.8 행사 준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외부 단위와의 연대 혹은 학내에서의 행사 를 생각해본다. 3. 메이데이 준비- 학내 활동단을 기획하여 내부 세미나 및 열린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보 전이나 작은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메이데이 여/성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4. 기획자보전이나 토론회에 한 팀으로 들어간다.		
기 타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듯		

(문화정치국)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문화정치국 2003년 활동계획	주 체	여량, 늘
사업소개	15대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넘쳐나리라는 낙관적인 예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입니다. 학우들의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학우들에게 쉬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여성주의 관련 사건 및 사태들을 쉽고 친숙하게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냉철한 자기반성 및 자아비판-;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온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할듯.		
사업방향	'문화'를 통한 여성주의의 전파를 목표로 학우들의 일상에 파고든다.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발랄한 아이디어로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한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어 보는 것.		
사업형태	월별 자보전, 여성제, 다양한 문화행사		
실시기간	2003년 내내 학기중 빠짐없이		
준비일정	1월부터 시작되는 사건정리, 토론회 준비, 세미나 등과 연계하여 준비.		
필요한일	자료수집 및 정리,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모색		
사용물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양하게 있는대로.		
예산비용	미정		
내 용	1. 자보전 화장실 신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매달 중도 또는 학관 앞에 서너가지 정도의 테마를 잡아 자보전을 실시합니다. 크게 세 쪽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의성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작고 사소한-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지요. 가족, 결혼, 이성친구, 동성친구,...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학기가 시작하면 학내에서 또다시 나타날 여러 과문들과 발언들을 공문화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일들과 교수 또는 학생들의 발언을 '이달의 BEST 5' 형식 등으로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글'뿐만 아니라 만화나 사진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시각적으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잘 구성해야겠습니다. 자보의 내용과 관계있는 퍼포먼스나 연극, 노래, 춤 등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세미나, 매월 있을 여성주의 문화행사, 토론회, 매체 등등과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성주의 문화행사와 여성제 다양한 월별 행사들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여성제를 열어봅니다. 선거준비기간에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와 노래 및 춤 등을 할 수도 있겠고, 2002년 여성제처럼 영화 상영, 공연, 강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 문화제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여성제 폐막제와 같은 무대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월경페스티벌과 같은 형식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가칭 '페미니즘 문화제') 무대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고, 준고정된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야외관과는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3. 그외 가능한한 다양한 행사들!! '문화'라는 말이 매우 포괄적인만큼, '문화정치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주아주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같이 해나가는것도 재미있겠지요. 내용과 형식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기 타	항상 빠릿빠릿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질것인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인터넷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명	총여학생회 인터넷 사업	주체	목적
사업 소개	인터넷은 그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일비재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마초이즘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주도적인 흐름 속에서 여성주의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망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주의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이 이번 총여학생회에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5대 총여의 인터넷 관련 중심 사업은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소통창구들(여자만의 방, J-페미니스트)입니다.		
사업방향	1. 총여가 구성하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 단지 이용하는 사람이 방문자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2. 우리의 생각을 잘 담아낸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에서 여성주의의 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사업형태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기간	2월 중순까지 완료 새내기 맞이할 때 광고		
준비일정	1월 중순까지는 틀 구성 완료 그 담은 내용채우기		
필요한일	홈페이지 제작		
사용물품			
예산비용	100,000		
내용	1. 여성학 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2. 여성주의, 총여 반성폭력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교육 여학생 휴게실 (사이버 건의함) 3. 여자만의 방 전체 게시판 공지사항 여성관련 뉴스 업데이트 : 신문기사나 사건 소식 중에서 지속적으로 올린다.		
기타			

(복지국) 사업 계획서

사업명	2003 복지국 사업계획서	주체	파문
사업소개	여학우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는 여학우복지가 얼마나 큰 일인지 다른 단과대학과 주체들도 알게 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사업방향	여학생 복지에 관련해서는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 단과대학에서 여학우들의 문제를 받아안고 부족한 부분을 총여가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중도나 학관, 대강당같은 공간도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생회와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사업형태	어떤 형태이든 총여 혼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실시기간	지금부터 2003년 이월의 그날까지		
준비일정			
필요한일	- 각 단과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단대별 복지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야 한다.		
사용물품	여기에 대해서 총여학생회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예상비용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총여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내용	- 단대별 복지 테이블 마련 : 여휴와 생리대 자판기,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일단 복지 테이블이 성사되어서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같이 논의할 것이다. 관련 사안을 교육투쟁에서 요구해도 좋을 것이다. - 복지에 관련한 피드백 받기 :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직접 여학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건의란을 넣거나, 복지 관련 비정기적 화장실 신문을 찍어도 좋을 듯. - 여성제 같은 큰 행사 때 복지 관련하여 무언가 여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한다. 무엇이 좋을까?		
기타	회장단이 중운위에서 얼마나 압박하느냐, 그리고 복지국장이 학복위 위원장과 어떻게 친해 지느냐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		

(성교육 행사)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성교육 행사 (행사명 미정)	주 체	총여학생회
사 업 개	13대와 14대 총여에서 body basics, body talks라는 이름으로 성교육 행사를 했었다. 그 흐름을 이어나가 잘못된 성담론에 대해 날카롭게 쏘아보고 보다 더 주체적이고 즐거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행사		
사업방향	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시선이 난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몸과 성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사업형태	행사		
실시기간	미정		
준비일정			
필요한일			
사용물품			
예산비용			
내 용	14대 총여의 body talks의 경우, 학관 앞 피임기구전시, 피포먼스, 영화 관람 등으로 이루어졌었다. 피임기구전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다. 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의 성교육 행사에서는 피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건강 상담 센터(가칭)'을 운영하시게 될 선생님을 모셔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건강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회 형식으로 나눠보는 것은 어떨런지.		
기 타	사실 사업계획서라고는 하지만 급조날조의 여파로 진중한 고민이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 다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		

성교육 부분은 총여 홈페이지에서 담당.

이와 관련해서 총여에서 별도의 야외 행사는 하지 않는다.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성폭력 상담소, 여학생처)

총여학생회 겨울 LT

장소 : 경기도 가평 죽령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031 592 0681)

일시 : 2003년 1월 6일~7일(1박2일)

LT 시간표

1월 6일	1월 7일
12:00 총여실 모여서 점심먹기 13:00 그랜드마트 장보기 13:50 신촌 -> 청량리 (205번) 14:30 청량리 -> 마석 * 버스 : 330-1, 765, 765-1, 1330, 650) 15:50 마석 -> 죽령산(40분 소요) 16:30 죽령산휴양림 도착 16:30~17:00 짐풀고 정리하기 17:00~18:00 휴양림 구경하기 18:00~19:00 저녁먹기 19:00~21:00 성폭력세미나 21:00~21:30 휴식 및 간식 21:30~23:30 사업 기획안 점검 23:00~ ? 친교의 시간 ^^	09:30 기상 및 세면 09:30~11:00 아침식사 11:10 퇴실(12:00시전까지 퇴실 완료해야함) 11:20 죽령산 -> 마석 * 이 버스 놓치면 13:30분까지 기다려야함) 12:00 마석읍내 도착 13:30 청량리 도착, 점심식사

날짜	금액	용도	비고
1/1	50,500	통나무집 예약	수수료 500원 포함
1/6	5,000	자연휴양림 입장료	1인 1,000원
		식사재료구입	<2끼, 밥간식> 쌀 1kg, 음료수(생수1, 오렌지쥬스1), 주류(맥주 식용유1, 냉동식품(과자

2003 겨울기활학교 (기활학교 준비 내부 문서)

- * 기활학교 기획단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미나 몇 번하고 기활 갔다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관련해서 실태 조사나 최근의 사건들 정리, 문헌이나 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기활 학교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느낄 수 있고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정리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글을 모아서 자료집 발행(100부정도)

세부 프로그램

- 기지촌, 성매매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 기활/성매매 관련 주제 세미나
- 기지촌 활동(장소 : 동두천 새옴터)
- 자료집 발행

일정

- 기활학교 기획단 구성 : 첫모임은 12월 27일(기획단, 일정 소개)
- 기획단 세미나 실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2회 정도
- 자료 수집 및 정리
- 주제 세미나 실시 :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간사 섭외 가능) 아니면 열린 세미나로(뭐 사람은 안오겠지만..)
- 기활 교양 실시(새옴터에서 하는 기활교양과 연계시켜서)
- '언니'들 만나러 가기
1월 말, 의정부 동두천 새옴터(031 867 4655)
출퇴근 안하면 방잡고 있으면서 친목도모 할 수도...(가능하면 세미나를 하고)
- 기활학교의 결과물을 담아내는 멋진 자료집 발행
2월 초
100부, 마스터 인쇄(비용은 총여 부담, 기활학교에 다른 단위 참여하면 공동 부담)

구성

- 실무팀
 - * 기활학교 실무담당, 진행 상황 점검
- 기지촌팀 : 2세 문제, 외국인 여성, 탈성매매, 성매매 공간으로서 기지촌의 특수성
- 성매매팀
- 청소년성매매팀
- 성매매방지법팀
- * 직접 자료 수집
문서자료 : 논문, 도서, 기사 등
성매매 관련 사건 정리(10년간 정도)
새옴터나 한소리회, 성매매 관련 활동하는 단체 방문해서 실무자 인터뷰, 최신 자료 수집
(단체 위치나 연락처, 활동 정리)
- * 세미나는 팀별 발제로 진행

세미나

- 1차 세미나 : 성매매(1월 2일)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서론, 1장)

- 2차 세미나 : 성매매 합법화론(1월 9일)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매매춘 합법화를 위하여>,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 3차 세미나 : 민족주의와 페미니즘(1월 12일)

정현백, 정진성 교수님의 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험한 여성>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민족 공동체 만들기',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를 가지고 진행

- 4차 세미나 : 군사주의와 여성(예정)

워크샵(1월 15일)

기활학교에서는 기지촌/외국인 성매매 여성,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성매매금지법, 언론 비평 이상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주제와 관련해서 팀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팀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기활참가자 정리

13일 : 슈가(016 9322 4230), 하나, 재임, 연경, 일념, 똑

14일 : 슈가, 하나, 재임, 연경, 일념, 시내

20일 : 흘씨(016 761 5453), 늘(011 9949 7230), 수현

21일 : 흘씨, 늘, 수현

22일 : 수현, 늘, 파문

23일 : 여랑(016 9562 8300), 태영, 파문

24일 : 여랑, 태영, 파문

* 전일 참가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 이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겨울 기활학교 평가회의

■ 기활학교 진행 일정

- 기 간 : 12월 27일 ~ 1월 24일
- 세미나 : 성매매/성매매 합법화론/민족주의와 페미니즘/군사주의와 여성
- 기 활 : 13, 14, 20~24

날 짜	13	14	20	21	22	23	24
참가자	슈가, 재임, 일념, 똑	슈가, 재임, 일념, 똑	홀씨, 늘, 수현	홀씨, 늘, 수현	과문, 늘	여랑, 태영, 과문	여랑, 과문

- 워크샵 : 1월 18일

■ 기활학교 활동

팀구성

- 기지촌/이주여성성매매팀 : 똑, 시내, 하나
- 성매매/성매매방지법팀 : 슈가, 지은, 노래, 일념
- 청소년성매매팀 : 홀씨, 이갈, 여랑, 재임, 태영
- 언론비평팀 : 과문, 늘, 수현

세미나

워크샵

기활

- 장소 : 동두천시 새옴터

■ 이후 작업

- 성매매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 기활학교 정리하는 자료집 발행

기활학교 소개 및 최근 3년간 참가인원 정리

발신 : 총여학생회

수신 : 여학생처

기활학교는

총여학생회에서 올해 겨울에 '2003겨울기활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활은 매년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기활학교에서는 참가자들과 기지촌/성매매 관련 세미나와 토론을 실시하며,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새움터로 기지촌 활동을 갑니다.(기활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참고자료 참조)

기활학교 일정

12월 27일

- 기활학교 첫모임

1월 2일

- 1차 세미나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서론, 1장)

1월 9일

- 2차 세미나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매매춘 합법화를 위하여>,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1월 12일

- 3차 세미나 <위험한 여성>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민족 공동체 만들기',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1월 13~14일

- 하루 기활(동두천 새움터)

1월 15일

- 기활학교 워크샵

1월 20~24일

- 기활(동두천 새움터)

최근 3년간 기활참가 인원

기지촌활동은 진행 주체가 새움터로 기활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1주일에 6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새움터가 정한 기활 기간에 신청한 학교가 많을 경우 그 인원은 더욱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주 진행에 15개 학교 단체가 신청해서 한 단체당 3명씩 배정되었습니다.

00년 : 6명(여름)

01년 : 6명(여름)

02년 : 4명(여름), 12명(겨울 : 하루기활로 6명이 더 들어가며, 3명이 5일간 진행하는 것을 이틀씩 줄여서 6명 들어갑니다)

참고자료 1 : 기지촌 활동이란?(<2001여름기지촌활동자료집>에서)

‘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의 문제를 알아가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지촌의 지역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모두가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촌 지역의 생생 배경,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제3세계 여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문제 등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지촌 활동의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순수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애정보다는 막연한 당위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자주’, ‘여성해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논의에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개개인의 인권과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지촌 문제를 ‘민족’이나 ‘여성’과 같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틀에 맞춰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은 오히려 주변화되고, 당위적인 ‘선언’만이 권력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명의 인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맺어진 이러한 관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지촌 문제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억압과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2 : 기지촌 활동의 역사(<2001여름기지촌활동자료집>에서)

최초의 기지촌 활동은, 1990년 ‘두레방’을 알고 지내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참여한 학교는 이화여대와 한신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차츰 기지촌 여성문제가 알려지고, 관심있는 학생들에 의해 자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지촌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교의 여학생 조직들을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체계와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촌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1992년에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의 여학생 조직들이 각각 의정부, 동두천과 송탄에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4회 기지촌 활동은 윤금씨 살해사건 이후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기지촌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춘 지역으로 활동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매매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 쉼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용산)’에서 기지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매매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현장 실무자가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94년의 5회 기지촌 활동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5년의 6회 기지촌 활동은 '동두천 두레방'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996년, 7회 기지촌 활동은 '의정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 단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기지촌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고, '의정부 두레방'의 경우 지역 민주당체와 연대하여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운동, 지역내 미군기지 실태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1996년 11월, '두레방' 등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동두천에서 '새움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지촌 현장단체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던 상황에서, '새움터'의 설립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배출된 실무자와 타 현장단체에서의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이 종교, 정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민간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새움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지촌 활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지촌 여성의 탈매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됨으로써, 1997년의 기지촌 활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움터'에서 준비한 기지촌 여성 탈매춘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허브(Herb)' 재배 및 판매였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동두천 인근에 약간의 땅을 마련하여 허브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지촌 지역의 아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면서, 그동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온 기지촌 여성의 자녀에 대한 야간 보육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1998년의 9회 기지촌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기지촌 활동 기간 중에 동두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해복구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새움터'와 기지촌 활동,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의 기지촌 여성 작품 전시회인 '동두천 아리랑'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실시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인하여 기지촌 활동의 준비가 약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기지촌 활동 경험이 축적된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가을 직업재활센터와 아동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게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의 여름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가 또 다시 수해를 겪게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나타났던 기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많은 단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무려 10주간이나 기황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회원들에게 무리가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30여개 대학교에서 기황에 참여함으로써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참가한 각 지역 및 단위 주체의 준비 부족과 상호 논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후 평가와 지속적인 연대사업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자료 3 : 새움터 사무국장과 인터뷰(정정현 제28호)

현: 어려운 질문인데요, 매매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쭙볼까 합니다. 페미니즘 내에서 매매춘을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매춘을 일로 규정하면서 합법화해야 한다 또는 매춘을 성 치료로 보자는 시각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데요,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시각의 정립은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 그것도 저희들 안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것은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남자 접대부 처벌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접대부도 엄연한 직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여연 소속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입장이고, 저희는 매매춘은 근절돼야 되고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단순히 처벌주의나 금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요. 사실 매매춘이 없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기가 현장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잘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의 활동이 현장에서 매춘을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춘을 금지한다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또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매매춘을 근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저희가 기활을 왔을 때 새옴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강은 알게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새: 저희가 하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지촌 지역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 뿐 아니라, 그 여성들의 실제적, 경제적 자립 또는 모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그분들이 당당하게 살아 나가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또 재취업, 전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육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모자 가정이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같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타 탈매춘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지원-성병이라든지 장기간 매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과 포주와의 빚 문제 아니면 법률문제 해결도 같이 하고 있구요.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나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동아시아미군여성네트워크(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지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단체의 한계 때문에 목소리를 직접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새옴터의 주력 활동을 탈매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새옴터 활동 전반이 다 탈매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그렇죠. 여기서 탈매춘은 개인적인 탈매춘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매춘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든지 매춘여성, 혼혈아동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나가는 활동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현: 동두천 지역 매춘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새: 동두천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동두천, 송탄과 의정부, 문산의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동두천이나 송탄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하고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유지들과 많이 결탁돼 있어서 사실 막강해요. 그런데 의정부나 문산 같은 경우는 많이 쇠락해 있어요. 거기 기지촌은 지역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저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나 송탄 같은 경우는 많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수관광업협회라든지 경기도 의회의원 같이 구별돼 있고 대부분 매춘여성을 인신매매해 오는 프로모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현: 기지촌의 특수성 때문에, 기지촌 지역에서 하는 활동은 다른 매매춘 지역에서 하는 활동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 관점의 차이일 텐데, 대부분 매매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만 접근을 하세요. 물론 그런 시각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지촌 매매춘은 그것 이외에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춘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며칠 전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기지촌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현: 현장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지촌 문제라든지 매매춘 문제 아니면 주한미군 문제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의 피해가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건 사실 저희가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이나 아이들이거든요. 운동본부라든지 한소리회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대외 연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리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아동센터나 전업센터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저희가 받다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지원금을 전체 예산의 10%, 일년에 천만원이 안넘는 한도 내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리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현: 그러면 정부 지원 이외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새: 외국의 여성단체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나 시민운동지원기금 같은 우리나라의 민간 지원 단체의 기금 지원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 외에는 후원회비로 꾸려져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건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죠.

현: 동두천 지역의 매춘 여성들이 새옴터를 많이 알고 있나요?

새: 아뇨.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못해요. 그것도 저희가 할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 알려 냈을 때 부작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일단 회원들이 여기 계시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상담 회원 중에 포주, 클럽주인 그리고 그들의 연합체가 있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 알려냈을 때 새옴터에 못 가게 막는다거나 여기 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지 피해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 내지는 못하고, 대신 회원분들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 사정을 듣게 되고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 기활을 추진하시는 동기나 기활에 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새: 기활이 올해로 10년째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두레방에서 학생들이 오겠다고 해서 한건데 지금 입장은 그래요. 저희가 현장단체이고 현장단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단체가 풀기에는 기지촌 문제가 참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학생이고, 또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도 가장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 보여드리고 이게 기지촌 운동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지촌의 현실은 이렇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해달라. 기지촌 활동이 말씀드렸겠지만 연대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현: 포주가 도의원이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새옴터 활동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윤금이 씨 사건 있을 때에는 동두천민주시민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연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의 민간단체라고 해봤자 동두천민주시민회, 동두천대학생회 밖에 없어요. 거기랑은 특별한 사안 있을 때 이외에는 연계를 하는 않고, 거기보다는 혼혈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혼혈인 선교단체와는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이 지역 성당하고는 아이들 교육비 지원받는 것 등에서 교류를 하죠. 아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좌우를 별로 가리지 않아요.

현: 탈매춘을 한 여성이 다시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꽤 돼요. 매춘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인 요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매춘밖에 없어요. 그 여성들이 편견도 없고 사회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다면 그리고 매춘의 경험이나 성폭행당한 경험들이 심리적인 치유로 극복이 된다면 완전한 탈매춘이 가능하겠지만 그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이 한계라고 느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새: 어느 하나의 입장에서 기지촌 문제를 바라보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문제만도 아니고 불평등한 남녀 관계의 문제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폭넓게 보고 연구도 하고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고, 새옴터 활동이 기지촌 여성운동의 전부라는 기대를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계가 있고, 말씀드린대로 연대의 시작이고 뭔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고민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명 : 총여실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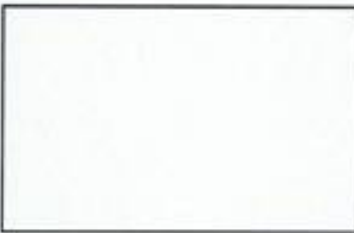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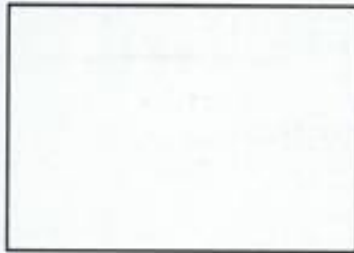
주 체 : 툇

활 동 : 총여실 내외 공간 꾸미기

일 정 : 선전의 날(2월 12일)

각 방별 문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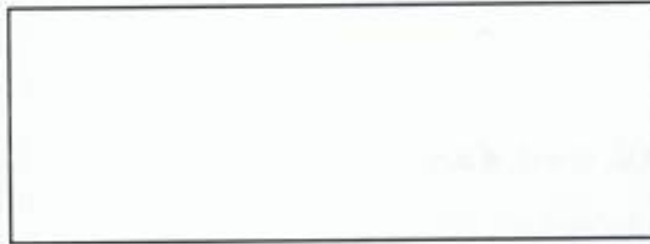
* 총여학생회 집행부실, feminary & 북카페, 여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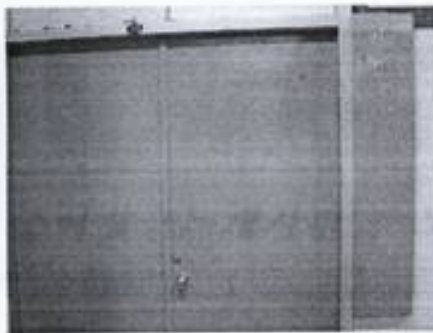
북카페 내부 게시판 - 여랑



총여실 앞 게시판 - 노래



총여실 간판 -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坡/만/波

연세대학교 15대 총여학생회

2123-3645 www.ysfem.or.kr

• 현판은 어떤 색으로 칠할까요?

총여실 정리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1/28)

* 2003년 새터 내규 자료집(B5, 16페이지)

스미스씨 이야기

성폭력의 개념, 새터 내규의 필요성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이해하기 & 도와주기

성폭력 사례와 대처법 ←법대

내규 관련 Q & A ←사회대

반성폭력 내규 전문

* 포스터(1도, 부수?)

내규 전문

대처법, 신고 경로와 같은 팁

소속 단대, 반, 조이름 조원들 이름 적는 자리
연락처 공란 만들기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개정

- 새로운 새터 문화의 형성을 위해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선배와 후배의 어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사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감과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보다 용이하게 함에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를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새터 내규의 제정과 시행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2000년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학칙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었다.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 내부의 자치적인 해결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학생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권을 구현해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터내규가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온 기간을 돌아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어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제정과 안착화의 시간을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규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식의 반응,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규에 위반되니 조심하라는 식의 회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년 전과 지금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간에, 새터 자리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막아낸다는 내규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행 몇 년을 거치면서 새터내규의 존재 자체가 학생 사회 내부의 인식 속에 점차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체감정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코 연세사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의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내규 시행 4년 차에 들어선 올해에는 새터내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차 당위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의 소소한 예방들에 가능성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더디게 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피보해버릴 가능성 역시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 내규 개정

새터 내규는 그동안 새터 기간에 벌어졌던 여러 성폭력에 대해서 그 사례를 밝히면서 내규의

새터 내규 개정 방향

1.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
2. 00년 이후 새터 기간에 벌어진 성폭력 사례를 추가
3. 대책위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 만들기

이제까지 새터 내규를 시행하고 전달 할 때에 있어서 - 특히 새내기들에게 - 어려운 지점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그 의의를 설명하느냐 일 것이다.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합의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내의 문화 특히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학우들을 배제시키고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새터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내 보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2002년 올해 새터내규 시행에 있어서는,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떻게 단위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느냐의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대학문화를 가장 처음으로 접하고 그때의 기억을 대학 생활 내내 안고 갈 새내기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미 대학생활의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당연히 취해야만 하는 노력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이며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올해의 목표로는, 여학우들을 배제하지 않는 프로그램, 특히 이제까지 여학우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놀이들을 바꾸어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의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대학의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통과례로서의 놀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수많은 성 차별적, 성폭력적 상황들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의 확인은 그것이 내재화되는 순간 끊어낼 수 없는 악순환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질문만으로 현실을 넘길 수는 없다.

2003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가)

- * 2000년도 제정된 새터 반성폭력 내규와 개정안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 * 진한 고딕체로 변경된 사항과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새터반성폭력 내규>>

※ 내규 적용기간을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에서 '수련회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로 변경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 내규의 목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개정하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변경.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유난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 ※ 1) 성폭력 개념을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으로 구분했던 것을 새터 기간 동안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활동과 연결시켜서 술자리,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생활 공간, 놀이자리, 신체적인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적대적 환경 조성, 사이버 공간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규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 3) 성폭력 사례에 있어서 00년 이후에 새터 기간에 일어난 성폭력적 행위들을 추가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례는 삭제하였다.

<<새터반성폭력 내규 개정안(가)>>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와 학생회가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의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이다. 신입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맨 처음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새터이기 때문이다. 새터에서 신입생들은 그전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대학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자라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이 가진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재학 생활 동안 지속될 인간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렇듯 새터의 중요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새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입생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그저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새터 내규는 한 성에 의해 다른 성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인 동시에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새터 참가자 및 진행자들은 내규에 대한 사전 교양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치열하고 지속적인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 관념을 지적해 내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학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술자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언어나 행위

예) "야,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내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내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존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림을 한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쫓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존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붙을 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용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가 용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있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2)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존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존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붙을 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용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가 용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예3) 00년도 모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여서 심사하고, 성적인 놀이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

예4) 00년도 모단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연극을 하였다.

3) 생활 공간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01년도 모 동아리에서 여자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붙여 놓고 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였다.

-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 공공장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예) 식사 준비나 방 청소를 할 때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하는 경우

4) 놀이 자리

- 신체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경우

예1) 00년도 모단대 새터에서 여학생 게임을 하였다.

예2) 02년도 모단대에서 다른 단대의 여학생 머리카락을 뽑고 립마스크를 찍어오는 게임을 하였다.

예3) 02년도 모단대에서 무를 갖기 게임을 하였다.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림해 해설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예) 02년도 한 단대 새터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력가'를 부른 사건이 있었다. '젖소부인 엘리제' 등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에서 '포르노'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1) 00년도 모 단대 오리 장소에서 아카라가 섹스 버전을 외치는 사건이 있었다.

예2) 00년도 모 단대 새터 때 '첫날밤에' 등의 게임이 이루어졌다.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손이나 신체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하는 경우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

6)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표현이 잠재된 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정그러운 눈빛, 짙은 짙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 예) 벽으로 돌아붙어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농담을 하는 경우
- 예) "얼 달 동안 배우르게 해줄까?" 등의 농담이나 유담패설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껴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을 하였을 경우
- 예) '애 잘 낳게 생겼군', '고속도로, 개란후라이, 건포도, 절벽, 찻소', '얼 굴 값 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말
-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
- 예) 남성에 대해 - '기생 오라비 같다', '남자가 왜 그렇게 촌짜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
- 여성에게 대해 -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 '여자가 힘이 세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넌 꾸밈줄도 모르냐' 등
- 한 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 예)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여자와 북이는 사육도로로 때려야 한다',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오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삼종지도', '칠거지악', '여자가 제법인데',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등의 표현

7 적대적 환경 조성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예) 일부러 휘파람, 교성, 참을 삼키는 소리 등 소리를 냄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쪽지나 편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 예) 벽으로 돌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다른 성의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행위
- 예) 01년도 모 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함.

8 사이버 공간

- 각 피/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예) 커뮤니티 자료실에 포르노를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

※ '7 동조자의 처벌'을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2차 가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사례를 정리하였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사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

- 1)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 성폭력 사건을 듣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경우
- 예) 01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반대표가 '별 일 아니다'라고 반응하고 은폐시키려 하였다.
- 예) '별 거 아닌 일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 가해자 주변에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 예) 02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친구가 '나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예는 그림 예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의무

※ 새터를 준비하는 주체인 학생회의 반성폭력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주제교양, 내규 교양, 자료집 구성 및 배포, 신고함 설치 등의 의무조항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심의 후유증을 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2)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경우 동조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2차 가해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4. 대상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새터에 참여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새터를 준비하는 각 학생회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제 교양을 받아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새터 내규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 기간에 발행하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 전문과 내규 소개 글을 실거나 새터 내규를 위한 모임에서 제작한 내규에 관련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하여야 한다.

- 각 단대 학생회는 새터 장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만들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학생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새터를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과문을 학내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신고와 신고기구

-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 사건 신고는 새터 기간뿐만이 아니라 새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신고와 관련된 시효 규정은 없다.

7.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성폭력 사실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의 용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각 학생회가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명시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지오지 않는다.

■ 1)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9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10. 대책위원회의 사건 해결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 가)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내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책위의 활동을 공식화 하였다.
- 나) 대책위의 성폭력 사건 해결원칙과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 다) 가해자 시도를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하였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1) 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6인)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증거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동아리연합회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나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최소3인, 최대6인)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는 가해자 처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단대에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 5) 대책위 위원에 공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이 된 대책위원의 소속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와야 한다.

10.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 1)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10. 징계내용

※ 성폭력 가해자 징계 내용 중에서 가해자 시과는 징계가 아닌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함으로써 징계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대책위는 사실로서의 사건을 구성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센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게 가한다.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보호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 가해 행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내용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2)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 제발 방지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내 지정한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12.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개정된 센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3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0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연락처

		이 름	핸 드 폰	이 메 일	반 커뮤니티
문 과 대	정	음 영 소	019-438-0005	eum922@hanmail.net	http://40inmun.wo.to
	부	남 두 형	011-9928-1173	soondoong00@hanmail.net	
말글이으뜸이	정	류 왕 수	019-478-0837	jevaisbien26@hotmail.com	www.yonsei01.wo.to
	부	강 희 원	018-220-9903	elsiz@hanmail.net	
중문날날2반	정	박 남 주	011-9533-4475	namjoonamjoo@hanmail.net	www.freechal.com/nalnai2
	부	김 종 호	011-782-4452	surfyysea@dreamwiz.com	
	부	김 지 현	019-9737-4256	britgirl@lycos.co.kr	
영문인문3반	정	추 희 정	011-9887-9717	anachj@hanmail.net	freechal.com/acelala
	정	박 영 민	016-208-4622		
독 사 반	단장	이 성 호			
불꽃 5반	단장	김 준	011-9892-7726	hawl_free@freechal.com	www.freechal.com/fire5
노문다울6반					
사고7반	01	유 지 만	017-717-4362		www.freechal.com/sago701
	02	임 도 빈	017-435-0172	okyesyou@hanmail.net	
철학8반	단장	임 용 빈	016-474-2661	yamgoon@hanmail.net	www.freechal.com/yonsei8
비상구반	정	김 성 민	011-9011-0260	rythemcrew@hanmail.net	freechal.com/flynine
쏘시오 열열이	정	김 형 민	011-9748-3681	hmmanse@hanmail.net	socio10102.cyworld.com
	부	김 민 영	011-9653-9511		
심리 11반	정	이 정 연	011-9984-8028		freechal.com/yonseipsychol1

연성부연
2003년 오리엔테이션 & 수련회 지출

▼ 영상물/포스터

종 류	내 용	비 용	비 고
내규 포스터	1도, 400부	200,000	
클리닝 테이프	1개	25,000	
6mm 테이프	1개	8,000	
영상물 공CD	10개	8,200	
총 액		241,200	

▼ 자료집

2003년 2월 7일 회의

■ 앞으로 할 일~

*잡지

- 제목 정하기(잡지이름, 표지 이름)
- 편집

*새터 내규

- 새터 주제 교양(단운위, 과/반)
- 새내기 교양
- 영상물

*테이타베이스

- 자료정리 : 성매매, 성폭력, 여성노동
- 홈페이지 만들기

*신입생 맞이 사업

- 18일 전체 행사 총여 소개(20분) : 나비 퍼포먼스
- 부스 마련 수첩, 잡지 배포

*북카페

- 책 정리
- 인테리어

*총여실

- 간판 마련
- 쓰레기 분리수거(종이/캔) 버리기
- 총여실 정리 정돈

*마초맨

- 내용정리

*연신원 문제

- 총여 입장
- 논지당 재건축 문제

* 여자 화장실 비상벨

- 여학생처 만나기
- 선전작업

남자 화장실 낙서 제거 요청합니다

연세에닐스에 실린 중도 남자 화장실 낙서로 인한 이화여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세대학교의 남자 화장실에 적혀진 여성 비하나 성폭력적 낙서들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신축 건물과 개보수한 화장실의 경우 이러한 낙서가 없지만 학생회관 1층, 대강당, 중앙도서관과 몇몇 건물의 경우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낙서를 지우는 방법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를 교체하거나 전체 도색을 새로 함으로써 이러한 낙서들로 인한 성폭력 사건 발생이나 학교 명예 실추가 이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강당 남자 화장실 낙서>



무악학사 사생 비율 현실화 요청(2/10)

여자 화장실 성폭력 예방 비상벨 설치 요청(2/10)

기숙사 가는 길 방법초소 운영과 야간 순찰 요청(2/10)

연세 여성주의자 새내기 맞이 기획단(가) 제안서

발신 : 총여학생회

수신 : 새내기맞이를 고민하는

모든 연세 여성주의 모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

이번 년도에도 여성주의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새내기 맞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총여에서도 새내기 여성학 학교와 더불어 새내기팀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들에 속하지 않은 새내기들도 같이 모아갈 예정으로 새내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내 상황을 볼 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은 학내에서 많이 퍼지고 있지만, 정작 이 곳이 여성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여성주의적인 불씨를 살려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내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00학번 이후로 활동하는 01,02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각 여성주의 자치단체에게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임의 이름과 하는 활동은 달라도 여성주의라는 이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모여서 새내기맞이 준비를 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들과 총여학생회가 모여서 같이 새내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내부 세미나 커리를 새내기용으로 같이 고민해도 좋겠지요. 서로가 가진 고유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나 좋은 생각도 얻을 수 있겠고, 이 밖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방학을 맞이하여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후의 연세 여성주의자들이 멋지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같이 해 봐요 ^^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 1월 5일까지 파문 (blueyoen@hanmail.net, 011-9862-3374 msn: blueyoen@hotmail.com)에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여와 기활학교의 일정상 기획단 회의 첫 모임은 20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2003 겨울 여성주의자 워크숍

2003.1.25

0. 워크숍 기획 의도

1. 단위별 활동 보고 및 평가

- 1) 모반
- 2) 비온드
- 3) 두입술
- 4) 페미니러
- 5) 14대 총여학생회

2. 개인별 평가

3. 토론

- 1) 여성자치모임과 총여학생회
- 2) 여성주의 재생산 문제
- 3) 여성주의자의 나태함

4. 제안

- 1) 노인들을 위한 재할 프로그램
·포스트 총여학생회
- 2) 기타

여학생 수첩

앞표지에 들어가는 글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15대 총여학생회

첫 페이지

일/破/만/波
(이후에도 일/파/만/파는 '일/破/만/波'로 한자를 사용해서..)

달력

요일을 영어로

강의 시간표

표에 줄을 넣어주세요

2월

<새터 反성폭력 내규>는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00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3월

29일 노수석 열사 7주기

4월

9일 여대생 성고문 경찰 구속

* 1988년 4월 9일 부천경찰서에서 여대생을 성고문한 문귀동 경장이 구속되었다.

5월

* 1999년 5월 13일 농협에서 사내 부부 우선 해고 방침에 따라 해고된 여성이 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해서 고소하였다. 국가 경제 위기 아래서 여성의 노동권은 더욱 위협받고 불안정하게 되었다.

6월

* 1999년 6월 25일 재자를 성희롱한 서울대 신 교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남녀차별금지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7월

5일 이한열 열사 16주기

31일 현대자동차 성차별적 구조조정

* 1998년 7월 31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과 144명의 식당 여성 노조원의 정리해고에 합의하여,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함께 싸워온 노조에 의해서도 여성노동자의 일한 권리는 무시 당한다.

10월

* 2000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 교수, 교직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칙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

12월

11일 <100인위>에서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Weekly (40주 * 2페이지)

weekly plan	1	2	3	4	5	6	7	8	9	10	11	12
<u>Mon</u>	<u>Fri</u>											
<u>Tue</u>	<u>Sat</u>											
<u>Wed</u>	<u>Sun</u>											
<u>Thur</u>	<u>Memo</u>											

줄 있는거

10 장

줄 없는거

나머지 전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소개

글씨 크게

‘여학생 휴게실’ 내용을 추가합니다

짜잔~ 여학생 휴게실을 소개합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여학우들, 오라는 곳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때로는 강의실, 도서관같이 공부에 압박주는 곳 말고, 과방, 동아리방처럼 북적이는 곳도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요? 화장도 편하게 고치고 싶은데, 치마를 입은 날도 편히 앉고 싶은데 과방이 아무리 편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생리통이 심한 날에 늦게까지 수업이 있다면 더욱 신경쓰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학교가 꼭 공부만 하러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생활의 일부로 쉴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여학우들을 위해 바로 여학생 휴게실이 있어요! ^^ 많지는 않고 넓은 편도 아니지만 여학우들이 편

히 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처음 여휴에 들어가면 서먹한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없지만 대학 생활 하다보면 이 공간만큼 편한 곳도 없습니다. ^^ 자, 그럼 옆에 지도를 보고 여휴를 찾아가볼까요~

논지당 - 본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1층짜리 아담한 여학생 전용 휴게 공간이에요.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이 쭉 있어서 공부하다 눈치 안보고 었드려 잘 수도 있답니다. 높은 의자가 있어서 잘 수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앞에는 아담한 정원도 있는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좀 좁고 학기 중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밖에 안 되지요. 안타까워요 T.T

상경대 - 별관 지하에 학생자치실 맞은편에 있어요. 좀 찾기 힘들답니다.

문과대 - 외술관 지하로 가는 계단 바로 앞, 문 하나 넘어서면 보이는 '여유샘'이에요.

사회대 - 연희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 옆에 있답니다.

법과대 - 광복관 지하 1층 복사실이 있는 복도로 가다 보면 대형강의실 옆에 있답니다.

이과대 - 과학관 1층 이슬샘 맞은편에 있어요.

의과대 - 의과대학 지하에 있어요.

치과대 - 치과대학 2층에 있어요.

공과대 - 제 2공학관 1층 복사실 옆방이랍니다. 좀 외져 있어요.

중도 - 6층 자판기 옆에 있어요. 흡연실도 따로 있는 곳이지요.

학관 - 3층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왼쪽을 쳐다보세요. 총여학생회 옆방이랍니다.

여휴에서 지켜야 할 수칙!

- 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나 흐트러진 자리는 꼭 치우고 가 주세요.
-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불도 끄는 것이 좋겠죠?
- 우리들의 여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영화 만화 음악 부분 (* 홈페이지 추가)

마돈나 www.madonna.com
 미셸 앤데게 오첼로 www.meshell.com
 보크 www.hikin.com/bjork
 사라 맥리클란 www.saramclachan.com
 시네드 오코너 www.sinedoconnor.com
 아니 디프랑코 www.righteousbabe.com/ani
 애니 레녹스 www.annie-lennox.com
 앨라니스 모리셋 www.alanismorissette
 제니스 조플린 www.officialjanis.com
 트레이시 채프먼 webross.elektra.com/elektra/tracychapman
 피오나 애플 www.fiona-apple.com
 k.d. 랭 www.kdlang.com

웹사이트 여성언론에 추가

새로운 여성주의 잡지 <일다 ilda> <http://www.ildaro.com>

다양한 여성들의 존재만큼이나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매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여성주의 잡지 <일다>를 준비하고 있다. <일다>는 격월간으로 5월 창간될 예정이다. <일다>는 현장에 뛰어들어 여성이슈를 발굴하고 여성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사회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끈질긴 접근을 해 나갈 것이며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논쟁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여성주의 문화에 추가

쥬이쌍스 <http://www.jouissance.pe.kr/>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웹진으로 기획/특집, 칼럼, 종합culture, 관악여성운동사, 소식, 앨범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발달한 글쓰기를 지향했으나 편집위원들의 대책없는 우울함으로 '바닥 긁는' 내용의 글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학내 여성관련 단체 모임 中 여학생처

homepage : www.yonsei.ac.kr/~women E-mail : women@yonsei.ac.kr

학내 여성관련 단체 모임 中 성폭력상담실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대학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E-mail : helper@yonsei.ac.kr

학내 여성관련 단체 모임 中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연세대학교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진적인 여성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직업의식과 지도력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여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개발을 위한 대외 협력 및 여성 직업의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며 대학 4년간 여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커리어를 개발하고, 투철한 직업관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ywomen.or.kr E-mail: womensd@yonsei.ac.kr

한총련의 故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서는 '반디 새내기'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 기간에 맞춰 발행된 이 신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윤금이씨가 죽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장면의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단지 전라의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을 소개함으로써 희생자였던 윤금이씨가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받았던 고통과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한 감정적 분노 유발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기지촌과 그곳의 여성들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식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죽음과 죽은 여성의 몸에는 여성으로서 받았던 고통의 기억보다는 인위적으로 부여된 의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군 철수와 반미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처참한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매체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윤금이씨의 사진이 미군 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금이씨가 살해당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한총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고 죽은 윤금이씨의 사진을 사용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2003.2.19

관악여성모임연대,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서울대인문여성모임연대, 서울대사회대여성주의자모임연대, 서울대동아리연합회여성모임연대, 서울대공대여성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신문을 만든 사람과 대화 했습니다. 여여 03-02-23 21

안녕하세요.

음... 일단은 한총련에서 그 새내기용 신문을 만든 사람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도 충분히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구요 바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이 뜬 날 바로 저와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기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하고 있더군요.

늦은 새벽 시간에 반성과 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글이 언제쯤 한총련의 입장으로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도 확언을 해드릴 수가 없군요..

만든 사람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총련이란 거대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은 여러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얻어내려면 무수한 토론이 오갈 것입니다.

여튼...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어렵게 글을 씁니다. fem97 03-02-21 45

저는 한총련, 전여대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도님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민족주의와 여성이라는 화두입니다.

항상 조직 안에서 운동해오는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이지요.

살아서는 멀리받던 기지촌여성이 죽어서는 우리의 누이가 되는 기막힌 이 현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심장에 묻습니다. 평소에 성매매여성들의 문제와 성폭력에 관심도 없지는 않냐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하자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자고...

운동사회도 어느 다른 조직들과 다를 바 없이 가부장제에 물든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과 그 사람들의 의식 또한 우리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바꾸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반미를 위한 문제제기를 위한 의도에서만 윤금이 언니의 사진을 전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되도록이면 언니의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사진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 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한총련 입장>

- <고 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논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진게재를 놓고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한총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총련은 이번 계기로 선전공간을 통한 <고 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 사진 게재 의도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가지 사례로서 새내기들에게 미군범죄의 심각성, 잔인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여년간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법 때문에 단 한번도 제대로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새내기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되는 지점은 '고인에 대한 예의' 부분입니다. 실은 신문이 나오고 나서 유가족들이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처참하게 살해된 <고인에 대한 예의부분>을 저희 한총련이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절대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이 없었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 귀 단체 제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3년 2월 2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새내기 신문에서 윤금씨 살해사건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

지난 10일자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은 예년처럼 새내기 맞이 특별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된 신문은 우리학교에도 배포되었고(17일) 총학생회는 이 신문을 OT기간에 맞춰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은 '대학생활/교육/통일/촛불시위/반미(미군범죄)'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와 몇몇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미군범죄를 다루는 지면에서 1992년 일어난 윤금씨 살해사건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기지촌 여성이 미8군 소속 캐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심한 구타와 성폭행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살해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씨의 사진이 편집 없이 그대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신문이란 매체에 처참한 사진이 여과 없이 실렸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총여학생회에서 아직 배포하지 않았던 신문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일단 신문배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날 새벽(18일) 이미 교문 앞에 신문 한 묶음이 배포되었었는데 곧바로 전량 수거하였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서는 그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는 우선, 공개적인 신문이라는 매체에 처참한 살해장면이 실린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문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이후에 공식적인 신문을 발행할 때나 배포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학우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윤금씨 사건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처참합니다. 그만큼 사진 그 자체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과 끔찍함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금씨 사진은 여성의 몸이 적나라하게 폭행당한 사진으로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11기 한총련(건)의 본질적 문제의식과 의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금이 씨의 사진 게재가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나,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11기 한총련(건)의 문제의식을 왜곡하는 결과는 낳는다는 것입니다. 윤금이 씨에게 폭력을 자행한 것은 주한미군이며 11기 한총련(건)은 그 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기 위한 방도로 사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여성의 죽음을 가슴아파하지 않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주장은 대중에게 비취질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제기 방식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비판과 주장에 앞서 이해와 토론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미 신문을 배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학내에 공개적인 한총련 비판자보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었음에도 폭로성 입장글을 학내에 게재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책임있는 논의로 이번일을 논의할 것이며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내에서 논쟁이 되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으로 불거진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한미관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범죄를 근절시키거나 SOFA를 개정하기 위한 시민, 학생운동이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다시는 윤금씨나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희생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예정어린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룬미래 40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한총련 '반디 새내기' 신문에서의 故윤금이씨 주검 사진사용 관련 총학생회의 입장글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와 공식적인 사과 요구

0.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학내 여성학자지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11기 한총련(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수련회 기간에 맞춰 제작한 '반디 새내기'라는 신문에 실린 윤금이씨의 살해 장면을 찍은 사진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같이 하는 다른 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성운동모임의 명의 연대를 통해서 한총련 게시판과 다른 학생운동단체 게시판에 올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1일 11기 한총련은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이란 이름으로 한총련 게시판(hcy.jinbo.net)에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다음미래 40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새내기 신문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라는 이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학생회는 입장글에서 한총련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에서 그 의도와는 별도로 윤금이씨의 사진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찍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신문에 이 사진이 사용된 것과 사진이 실린 신문이 배포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진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11기 한총련(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한총련을 비판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자치모임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적절치 않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입장글을 보면서 총여학생회는 한총련 발행 신문이 학내로 들어온 후 배포되고 수거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글의 내용이 몇몇 부분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반디 새내기' 신문은 11기 한총련(건)에서 2월 10일(월)에 발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는 17일(월)에 총학생회실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한 묶음이 정문 배포대에 먼저 배포되었습니다. 18일(화) 새벽 3시에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총학실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으며 신문에서 윤금이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신문의 사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로부터 회장단과 논의해보라는 말을 듣고, 부총학생회장에게 사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문을 배포하지 않거나 사진 부분에 대한 라벨 작업을 한 후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은 사진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신문에 대해서 총학생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학교를 나가던 중 정문에 배포되어 있던 신문을 발견하고 총학생회에 신문 수거를 요청하였고 총학에서는 배포된 신문을 수거하였습니다.

총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진에 대한 문제의식의 유무를 떠나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는 신문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총학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배포를 중지했다는 입장글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총학생회에서 배포를 중지하고 수거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학내에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포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데체를 발행하거나 배포할 때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에서는 신문에 사진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새벽에 총여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배포를 중지하지도 수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총학생회는 한총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총여학생회가 한총련의 문제의식과 의도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성명서의 내용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성명서의 내용을 왜곡하여, 성명서를 작성한 단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총학에서 문제삼은 (윤금이씨의 사진 게재가)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적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라는 부분과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성명서 본문에서 '여성의 처참한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적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는 전체 내용 중에서 앞 뒤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며, '기지촌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총학생회는 '죽음을 이용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의 죽음을 가슴아파하지 않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주장은 대중에게 비취질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종여와 여성모임이 문제제기한 것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지 '(한총련에서)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을 직접 제작한 11기 한총련(진)은 21일 발표한 입장글에서 '〈고 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논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진 게재를 놓고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한총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총련은 이번 계기로 선전공간을 통한 〈고 윤금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어나 자치모임이 성명서를 통해서 비판했던 11기 한총련은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총련을 왜곡한다는 입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입장글을 보면서 성명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만드는 것은 총여학생회도 11기 한총련(진)도 아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총학생회는 문제제기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주장에 앞서 이해와 토론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지촌에서 윤금씨가 살해당한 것은 11년 전인 1992년입니다. 그리고 윤금씨의 사진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총여학생회와 여성모임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 10년 가까이 문제제기한 것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판과 주장에 앞서 이해와 토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윤금씨의 사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종여와 여성모임에 이해와 토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 없이 사진을 사용한 한총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여와 여성 모임의 한총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총련이 이번에 발행한 신문에서 윤금씨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가 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비판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에서조차 이 사진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진이 사용된 목적과는 별개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에 대해서 아래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첫째,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공식적인 입장글을 통해서 성명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자치 모임뿐만 아니라 성명서에서 공동 명의를 사용한 다른 대학교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성주의모임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명의의 직접적인 사과와 공식적인 공간을 통한 사과문 게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총학생회 성명서에서 지난 17일과 18일에 신문이 배포되고 수거된 과정을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정정할 것과 이 과정 속에서 총학생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 내용을 학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연세대 내에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총련의 '반디 새내기' 신문과 총학생회의 성명서와 관련해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논의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넷째, '반디 새내기'와 성명서 관련해서 21일(목)에 총여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 사무국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제의식과 활동에 있어서 공유지점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않고,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글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부총학생회장과 집행위원장은 총여학생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움터와 학위 수여식 연대활동(2/24)

총여학생회 학위 수여식 연대활동
- 새움터와 종이꽃, 차, 엽서 판매

▼ 연대 활동 단체 소개

새움터는 생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로서 성매매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 과정을 돕고,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움터 언니들은 기지촌에서 탈성매매하여 생계유지를 위해서 비즈 공예나 종이꽃 만들기, 꽃 엽서 만들기 등의 직업재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에서 졸업식이나 대동제, 여성제 기간에 새움터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작년 여성제 기간에는 새움터에서 제작한 비즈 공예품과 엽서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 졸업식 판매 활동 소개

판매 부스를 마련하고 새움터 언니들이 가지고 온 꽃이나 엽서 같은 물품과 차를 판매합니다.

일시 : 2003년 2월 24일 9시~12시

장소 : 학생회관 앞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토론회(3/3) **- PICIS, 철폐연대**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이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이번 95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당해 행사를 준비하고 이후 상설적 연대체로써의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처음 제안서를 띄운 관악여성모임연대 및 몇몇 대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일정의 촉박함이나 다른 여러가지 정황들로 인해 초동 논의가 소수의 단위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을지언정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좀 더 많은 단위들의 다양한 고민들과 만남들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러오곤 했던 지난 한계들을 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공동의 기획으로 대학 내 여성운동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있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그 기원으로 합니다. 1908년 3월 8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 공장기숙사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그 만오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평등한 참정권, 노조 결성의 자유,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외치며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각국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이후의 3월 8일을 국제적으로 기념하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년 전부터 3월 8일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당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천들을 구체화시키면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한 해 운동의 기점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의 3.8 투쟁들은, 3월 8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내는 단일한 목소리라는 허구적인 지향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되도록 해 온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월 7일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날’ 을 같이 준비합니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학내 여성운동단위들과 개별 여성주의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학 여성 운동의 독자적인 판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언제나 산적해있는 만큼 몇 가지 집중적인 슬로건을 들고 이 시기의 압축적인 투쟁을 만드는 실천들은 물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 이제 새학기를 맞을 즈음의 단위들 상황을 공유하고, 단위며 개별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환류시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좀 더 주력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점점 축소재생산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고립되고 있기에 다른 단위들과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그만큼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서로서로의 상황에 촉수를 곤두세우고서 때로는 지원 세력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연결망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그리고 하나로만 묶일 수 없는 여성 내부의 차이들을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소수자의 관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노력을 통해 학내 여성운동의 화두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바로 그

러한 점을 지향하는 연대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단위의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3월 7일 대학내 여성주의자의 날' 은 2003년 3월 7일 늦은 세시 연세대학교에서 그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가 이제까지 두 차례 준비 회의를 거쳐오면서 이야기한 바는, 무대와 객석이 엄연히 존재했던 지난 문화제의 형식을 탈피해서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이야기마당의 형식으로 그날 판을 가져가보자는 것과, 그 날 참가하는 단위 혹은 개인들이 조건이 되는대로, 자기 단위들에게 현재 시급한 문제의식이라던가 앞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 그 곳에 온 여성주의자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는게 어떨까 하는 것 정도입니다. 기획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단위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만 있다면, 준비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위와 나누어 보고 싶은 자료들(학내에 뿌렸던 유인물이나 자료집 등등)을 갖고 계신 단위의 경우 파일이 있다면 커뮤니티를 이용해 미리 올려주실 수도 있고, 당일 참가를 하셔서 직접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자원들을 나누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봅시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먼 곳에서 오실 분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싶으신지, 연락을 주세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전화번호:02-2123-3645, 이메일:feminist@yonsei.ac.kr)

3. 그리고,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참가를 제안합니다.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는 "장애여성공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가 주축이 되는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 가 3월 8일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시위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성폭력, 학대가 온 데 만연합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으로 성소수자 여성과 장애여성들이 억압당합니다. 여성단체연합과 같은 기존 여성운동진영은 점차 제도화되거나 주류화되어 여성안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 다시 묻혀 들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 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기획 의도로 3월 8일을 준비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고민하면서 3월 8일 여성 무지개 시위에 학단위에서도 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위계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함께 즐기는 '여성의 날'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힘을 실읍시다.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일시 : 2003년 3월 8일 늦은 네 시 경

장소 : 남인사 문화마당 (섭외 중)

95th 3.8 여성의 날 기념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3월7일 오후3시 연세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여성운동 단위 프로그램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다들 물어 달은 여성연대
3.8 무지개 시위

3.8 여성의 날을 고민하는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feminist@yonsei.ac.kr | 02-2123-3645

일시 3월 7일 오후3시 장소 연세대학교

색다른 어울림 3.8 무지개 시위(3/8)

3월11일 새내기여성학학교 전격개강!!!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개강합니다!!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만은 언제나 새내기인 여러분들^^
 여성학 혹은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도 많고, 공부해보고도 싶지만
 도대체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여성학 학교를 만들어가요~~ㄷㄷ

3월 11일	개강일! 저녁 여섯시까지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로 모여주세요^^
3월 13일	여성은...? 남성은...? - 우리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 혹은 진실 밝히기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中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글로리아 스타이넘 (현실문화연구, 2002년 4월) X라는 아이의 양성성에 대하여(가) 페미니즘 1장 「이후」, 2002
3월 18일	여성의 몸, 대상화 - 여성의 육체에 새겨져온 억압의 시선들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中 『시각적 억압·성별과 시선』, 수잔나 D.윌터스 (포하나의 문화, 1999년 9월)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中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극대화』, 케티 콘보이 (한울, 2001년 4월)
3월 20일	성매매 - 사회적 필요악이 아닌 반드시 없어야 할 폭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성매매 『섹슈얼리티 강의』 中 『6장,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혜 (동녘, 1999년 3월)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년 5월) camp 자료집 중
3월 25일	성폭력 -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성폭력, 시원하게 까발리기 『섹슈얼리티 강의』 中 『9장,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동녘, 1999년 3월) 『페니스 파시즘』 中 『‘우아한’ 폭력과 그 정장은 공모자들 학습되는 무력감, 재생산되는 폭력, 대물림되는 절망』, 시탁 (개마고원, 2001년 7월)
3월 27일	사이버 테러, 성폭력 ; ‘사이버 스페이스와 여성’ 토론회 - 사이버스페이스의 마초이즘과 여성배제·억압
4월 1일	가족, 아내폭력 -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포하나의 문화, 2001년 8월)



문의는 여기로~!

tel. 2123. 3645

e-mail : feminist@yonsei.ac.kr

homepage : www.ysfem.or.kr

ysfem.or.kr

총여학생회 2/3월 사업

사업명	일정	주체	내용
홈페이지 제작	2월 17일까지	똑	홈페이지 제작, 서버 마련, 홍보
데이터베이스용 자료 정리	2월 14일까지(초안)	똑	카테고리 작성, 자료 정리 상황 점검
북카페	2월 17일까지	과분	책/자료 분류, 인테리어, 선전 계획
daydream 잡지	2월 20일까지	노래	원고 청탁, 원고 정리, 이미지 찾기, 기획사 일정 잡기
새터 내규 교양		노래	단운위, 단대 교양 상황/일정 점검
반성폭력 영상물	2월 17일까지	늘	영상물 제작
오티 전체행사 총여 부분	2월 17일까지	여량	총여 활동 소개, 나비 퍼포먼스
마초맨		여량	'왜 마초맨이 성폭력인지'에 관한 글
신입생 맞이	3월 중순까지	과분	부스 설치, 선전 내용
3.8 여성의 날 기획단(학내외)	3월 초까지	여량	기획단 모임 참가, 3.8학내 활동 계획
3.8 기념 토론회	3월 3일	늘	토론회 기획단 참가, 세미나 준비
새움터 졸업식 판매	2월 24일(월)	똑	학생처, 테이블, 온수기 준비
새내기 여성학 학교	3월 초	학술교육국	새내기 학교 준비
학칙 개정 총여 부분	2월 14일	여량, 똑	총여 활동 위상
총여실 꾸미기	2월 12일	똑	게시판, 간판, 문패
기획자보	3월 중순	문화정치국	총여 기획자보
토론회	3월 말	학술교육국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2월 10일 2시 사업 점검 집국 회의

사업별 일정 내용 활동 정리해 오세요.

매체 편집위원회 수습 편집위원 세미나 커리큘럼

	읽을거리
페미니즘	『행복한 페미니즘』, 벨 hooks
	『페미니즘』, 제인 프리드먼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롤 타브리스
	참고자료 : 『일상의 반란』,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글로리아 스타이넵
여성운동사	『여성과 자연의 관계 :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장미경
대학여성운동	『대학 여성운동사』, 박문세원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달과입술
성매매	『우리는 성매매를 왜 반대하는가?』, 원미혜
	『성매매는 무엇이 문제인가』, 모름
	『전국 성매매 여성의 실태 및 대안 연구』, 김현선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장, 캐슬린 베리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 집
기지촌	『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86~1998』, 정희진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캐서린 문
이주여성 성매매	『미군 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김현선
성폭력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1장
	『‘우아한’ 폭력과 그 곁잡은 공모자들』, 시타, 『페니스파시즘』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 개념인가?』, 변향혜정
	『연세대는 성폭력의 안전지대? - 연세대 내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학칙제정』, 강김정임
사이버 성폭력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는법』, 권김현영, 『페니스파시즘』
포르노그래피	『사이버포르노그래피와 성별정치학』, 『정보 매체의 지구화와 여성』, 장필화
	『사이버 포르노와 여성』, 『사이버 문화와 여성』, 이수연
일본군 성노예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양현아, 『위험한 여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낮은 목소리』 (『20세기 여성사건사』)
페미니즘과 과학기술	『생산기술 : 성별 분리된 직업 만들기』, 『페미니즘과 기술』 2장, 주디 와츠맨
	『재생산기술 : 남성들 손에 넘어가다』, 『페미니즘과 기술』 3장, 주디 와츠맨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 역사와 함의』,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하정옥
	『성별과 과학』, 『과학과 젠더』 4장, 이블린 폭스 켈러
가족아내폭력	『아내, 노예, 그리고 임금노예』,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5장, 케릴 패이트만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이미지 속 여성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수잔나 D. 월터스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5장, 수잔보르도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장, 샌드라 리 바트키
국가와 여성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1장, 최정무
	『민족 공동체 만들기』, 『위험한 여성』 2장, 문승숙
	『식민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미로』, 『“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양현아
	『테리의 체현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 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 마리아 울루지
성별화된 노동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김현미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 개념』, 『“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김현미
	『노동개념 새로보기 :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페미니즘』 1장, 정고미라
젠더	『사람다움, 남자다움, 여자다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2부
	『젠더, 성, 이론』, 『젠더 연구』, 잉에 슈테판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제 15대 총여학생회 공연팀 대모집!!!!

☺ 강사 : 춤추는 사람 후추

후추의 화려한 경력!!

- 1999. 09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힙합 공동체 「I WILL」 창립, 제 2회 연세대학교 여성제 데뷔 공연
- 2000. 5. 27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女樂女樂' I WILL 오픈 공연
- 2001. 5. 19 제 3회 안티 미스코리아 출전 「I WILL」
- 2001. 9. 8 제 3회 월경 축제 완경 퍼포먼스 (with 바우쉬)
- 2001. 9 4회 연세대학교 여성제 「風遊女人」 기획, 문화제 「女友야!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총기획 및 사회
- 2001. 12. 22 현경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출판 기념회 퍼포먼스 (Woman Accidental)
- 2002. 3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 3집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반전 Requiem' 퍼포먼스 5회 공연
- 2002. 5~10 통곡대, 중앙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동덕여대 문화제 퍼포먼스
- 2002. 12. 21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3주년 기념 행사 「Dance하자!with걸스 Hip-Hop」 총기획, 안무, 연출 및 공연
- 2002. 12. 30 여성의 전화 지하철 문화행사 퍼포먼스 공연

현재 연세대학교 여성 힙합 공동체 I WILL, 여성주의 몸 작업 그룹 Woman Accidental,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걸스 힙합 강사

** 19일 수요일 6시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에서 만나요^o^ **

☎ 연락처 : 2123. 3645



홈페이지 : www.ysfem.ac.kr



e-mail : feminist@yonsei.ac.kr

총여학생회 3월 열린 세미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마초이즘과 여성배제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은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

- 조이여울(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co.kr)

▼ 사이버 성폭력 누가, 어떻게 하는가? 사이버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과정

- 아원(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일시 : 3월 27일 6시

장소 : 미정

* 총여학생회 열린 세미나/토론회는 여성주의/여성학 주제들을 가지고 매월 진행됩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총여학생회(www.ysfem.or.kr)로 연락해주세요.

feminary & 북카페 open

북카페에는 200여권의 여성학 도서와 자료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책상(4석),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관 자료는 신분이 확인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람 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픈 다과회 : 3월 24일 월요일 1시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월~금)

학원자주화투쟁 총여학생회 요구안

- #1 각 단과대학 및 보직 교수중 여성 교수가 20%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라!
- #2 교내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학생측의 참여하에 이를 집행하라!
- #3 성폭력 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2인 이상으로 확충하라
- #4 매학기 채플 시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 #5 대강당 앞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농구대를 철거하고 공대 옆 운동장에 전용 농구장을 설치하라!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 (4월)

- Fminists Speak Against the War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반전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토론회

Feminist Speak Against the War!

Program

사회: 김이정민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발제1: 2003년 한국의 반전 담론

반전 담론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여성주의자 반전을 말하기 위하여
(이한지은,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발제2: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국제관계의 논리

Whose Reality Counts?

(이현옥, 여성주의 활동가 University of Sussex Gender and Development 석사)

발제3: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타리,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발제4: 탈냉전 시대의 국익과 시민권 개념

우리를 국민으로 호명하지 말라-탈냉전 시대의 국익개념과 반전시민권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유토론

일시: 2003년 4월 10일 (목)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연세대학교 상경관 본관 B121호

주최: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

여성주의 반전 토론회를 준비하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장기전으로 향해가고,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독재정권축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작된 '이라크의 자유' 작전의 이면에는 그저 살아남을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이름으로 각자 입장과 이유는 다를지라도 이라크전에 반대해야 함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보'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국익'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며, '진보'와 '국익'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국가 안에 갇혀버려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제 관계 전문가, 군사 전문가가 총출동한 뉴스들 속에서, 구경거리처럼 되어 버린 이라크 전쟁 보도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제관계를 국가간 이해 관계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 전쟁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우리는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을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련한 담론들, 특히 반전 담론들을 정리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 전쟁과 관련한 국제 관계의 논리들을 재구성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시대에 국익과 시민권 개념을 어떻게 다시 써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명서>

인권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우리는 작년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이후 일어났던 촛불시위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전시위에서 보여지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종종 성조기를 훼손하고 'Fucking USA'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故윤금이씨를 비롯한 미군범죄 피해자의 참혹한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라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며,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패권주의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등식을 만들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Fucking USA'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던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 사진은 故 윤금이 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왔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 시신 사진 사용이 초래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투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진들은 운동의 효과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故 윤금이 씨의 주검 사진은, 사진이 찍힌 각도 자체가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사진이 찍혔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충격을 유발하여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운동은 그 충격이 완화되는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검 사진 전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합니다. 故 신효순, 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국이 여성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故 윤금이씨 살인 사건을 불평등한 국가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故 윤금이씨의 죽음을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여성에 대한 국가 내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미군과 한국 여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고 군사주의가 팽배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위해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반전은, 힘의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군비를 증강하는 것, 여성과 소수자의 주체성을 삭제해 버린 채 그들을 보호막에 가두고 동시에 지배하는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창녀' 구도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을 거부하며, 모성만을 여성이 말할 수 있는 평화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어머니가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써 반전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어머니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지난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전쟁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전쟁과 폭력의 오랜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말하지 않고 은폐하는 전쟁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증언합니다. 여성으로서 증언합니다.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시기 진행 중인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을 벌여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근본원인인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충격적인 말과 영상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전쟁을 반대한다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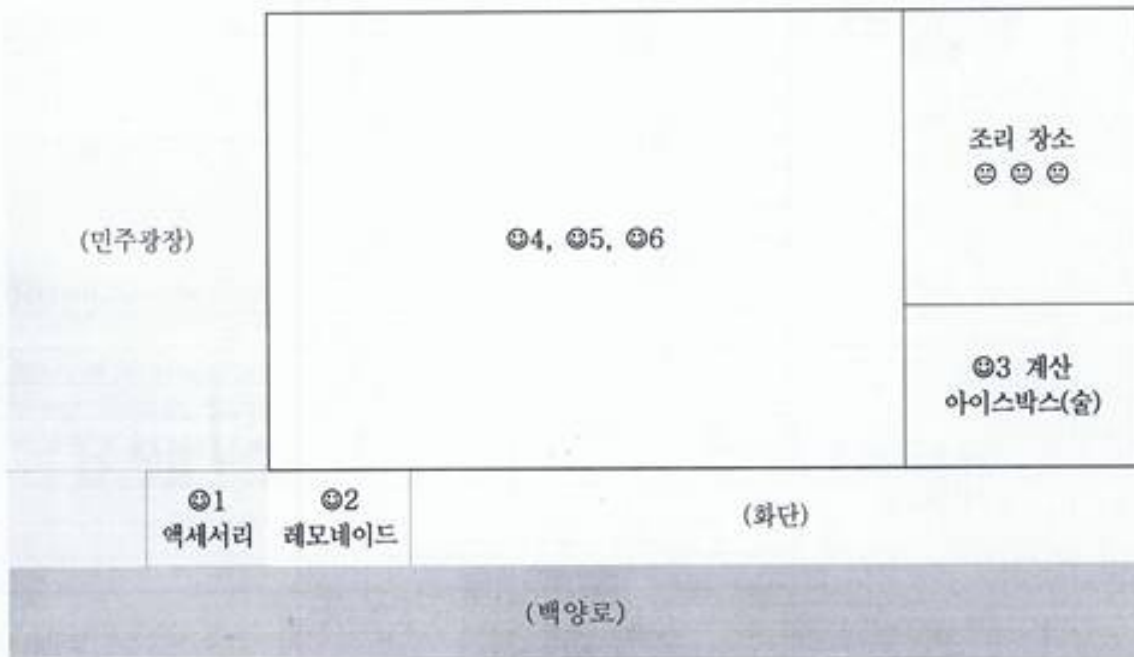
2003년 4월 7일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새움터와 함께하는 대동제 연대장터

장터 구성



- 천막 크기는 6m x 3m
- 바닥은 '스티로폼 + 피씨천 + 비닐'



상
메뉴판

판매하는 품목

- ▼ 안주 및 주류
- ▼ 레모네이드
- ▼ 액세서리

종별	메뉴	재료	수량	비고
안주	골뱅이무침(40개) 8천원	국수 소면	3개	
		골뱅이	통조림 15개(알 큰거)	
		청양고추	3근(130개)	부추전
		빨강고추	2근(60개)	
		참기름	1병	
		깨소금	1통	
		식초	500ml	
		백설탕	1kg	
		미원	500g	
		고추장	1kg	
		오이	15개	
		빨간무	10개	
		깻잎	15묶음(100개)	부추전
		양배추	3통	순대볶음
		쪽파	2단	
		고춧가루	1근	
		간마늘	-	에란 언니(4000원)
		양파	큰자루 하나	
	부추전(80장) 7천원(2장)	부추	10단	
		식용유	큰거 2개	
		쇠고기 다시다	1개	
		계란	1판	
		밀가루	4kg	
		부침가루	4kg	
		맛소금	500g 한봉지	
		간장	500ml 하나	
	순대볶음(20개) 8천원	순대	6kg	1인분 250g
		양배추	-	
		청양고추	-	
		깻잎	-	
		볶은 들깨가루	1통	
		양파	-	
		대파	1단	
	오징어 땅콩(40개) 5천원	마른오징어	40마리	
		땅콩	2봉지	
		마요네즈	1개	
	나초 & 살사(30개) 5천원	나초칩	4봉지	
		살사	3병	
	콘버터 & 치즈(30개) 5천원	옥수수 통조림	30개	
		버터	?	
		치즈	20장	
		백설탕	-	

주류 & 음료	맥주(100병) 2천5백원	?	100병	단가 1050원
	과일 맥주(150병) 3천5백원	KGB	150병	단가 1550원
	레몬소주(60병)	소주	30명	단가 640원
		레모네이드 분말	-	
		생수	?	
	레모네이드(300개) 천원	레모네이드 가루	5개	개당 2천원
		사이다	10개	
		생수		

그릇 접시	플라스틱 접시	30개	크린팩 씌워서 사용
	작은 접시	40개	간장, 마요네즈 담을 접시
	종이컵	300개	레모네이드용 좀 큰 거
기타	크린팩	200장	
	쿠킹호일	1롤	
	부탄가스	15개	
	부스터	3개	
	후라이팬	3개	부추전, 순대볶음, 콘버터
	나무젓가락	200개	
	일회용 숟가락	50개	씻어서 재활용
	쓰레기봉투	2개	
	테이블	2개	
	게시판	3개	
	빨대	300개	

5/11	색지	..	6000	
5/11	색 전지	6장	15000	
5/11	일요일그랜드마트	그릇, 컵, 부탄가스	45000	
5/12	책비닐	20마	6400	
5/12	햇반, 지퍼팩	15, 1	20500	
5/14	소주	1box	22000	
5/15	KGB	2box	72000	
5/15	통얼음, 각얼음	1개, 3개	9500	
5/15	뽕튀기	2	2000	
5/15	강통따개	1	1500	
5/15	레종	2갑	4000	언니들
5/15	레종	10갑	20000	판매용
5/15	장터용 재료 및 물품		269500	
5/15	재료 추가	부스타, 접시, 밀가루	36000	
5/15	생수	350 * 30	10500	
5/15	통얼음	1	5000	
5/15	생수	350 * 28	9800	
5/15	비닐	15마	3000	
5/15	OB	20000 * 7box	140000	
			697,700	

수입 : 1,227,000

노래 : 10,000

호름 : 20,000

미숙 : 20,000

일다 : 20,000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design women's desire

■ 주최 :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제 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 feminist@yonsei.ac.kr / 2123-3645

■ 장소 후원 : 40대 문과대 학생회

여성, 욕망, 말하다

기간 : 2003.6.2~6.5

주최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행사 안내

날짜	프로그램	시간	장소
6월2~5일	설치물/자보전		학관 1층 로비
6월 3일(화)	드래킹 퍼포먼스	12시 50분	백양로 삼거리
	페미먼스 공연 <여성.욕망.이루다>	6시 30분	위B09
	<분노를 터트려라! :트라이브 8에 관한 타큐멘터리>	7시	위B09
6월 4일(수)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6시 30분	외110
	<욕망을 영화화하기 :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7시 30분	외110

▼ 프로그램 세부 설명

퍼포먼스

Drag King 퍼포먼스 - by 나비

-6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50분 / 백양로 삼거리

공연

여성, 욕망, 이루다 - by Femimance

-6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위당관 B09호

영화

분노를 터트려라! :트라이브 8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Rise Above ; The Tribe 8 Documentary / Tracy Flannigan / 미국 / 2002년 / 80분

* 2003년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다이크 펑크 록 밴드인 트라이브 8(tribe 8)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퍼포먼스 및 노래 가사가 주를 이루는 트라이브 8의 공연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한 여성 영상작가가 그들의 신념을 캐내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카메라를 돌린 결과물이다.

영화는 트라이브 8의 공연 상황과 이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멤버 개개인의 밀착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 이미지로 어필해야 하는 정형화된 여가수 이미지와 포크와 팝 음악 장르가 지배적인 '여성' 음악 장르를 넘어 서려는 트라이브 8의 신념과 그 신념이 싹튼 원인 및 맥락을 담고 있다. 카메라는 밴드 멤버 각각의 어린 시절, 노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 여성으로서 각자에게 놓여진 냉엄한 현실에서의 생존 방식 등을 이들 밴드와 하나의 여성 공동체로 어우러져 담아낸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여성/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으로서 느끼

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역설적으로 주변인이라고 자신을 동일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자유와 용기를 무대 위에서 함께 폭발시킨다. 기존의 가부장제에서 권하는 '여성'을 '넘어서는' 자만이 가시화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여성영화제 홈페이지]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 위당관 B09호

영화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Filming Desire ; A Journey Through Women's Film / Marie Mandy / 프랑스 / 2001 / 60분

* 2001년 몬트리올 영화제, 2001년 그레페이유 여성영화제, 2002년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대담한 다큐멘터리에서 마리 망디 감독은 질문을 한다. "여성 감독들이 사랑, 욕망, 특히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영화화 하는가?"

샬리 포터, 아네스 바르다, 까뜨린느 브레이야, 도리스 되리, 디파 메다, 제인 캠피온 등 현재 세계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감독들의 진귀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작품.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는 영화 제작에 있어 성의 정치학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성 감독들은 자신의 직업들에서 가져온 클립들로 실례를 들어 여성적 관점의 구체화, 여성적 영화 언어의 가능성,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된 영화 속의 욕망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더불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솔직하고 익살스러우며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여성학, 영화학, 섹슈얼리티, 신체의 이미지,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주요한 관점을 선사할 것이다. [여성영화제 홈페이지]

-6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외솔관 110호

강연

욕망을 영화화하기 :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강연자 : 주유신(영화평론가,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6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외솔관 110호

6월 3일(화) 드래킹 퍼포먼스, 공연, 영화
 드래킹 Drag King 퍼포먼스 오후 12시 50분 백안로 삼거리

페미언스 Feminance 공연
 여성, 욕망, 이루다 오후 6시 30분 위당관 809

제 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분노를 티트려라! : The Tribe 8 Documentary 오후 7시 위당관 809

6월 4일(수) 영화 & 강연
 여성의 사랑, 욕망, 섹슈얼리티 오후 6시 30분 외출관 110호

영화: <욕망을 영화화하기: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욕망을 영화화하기: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강연: 주유신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design women's desire

- 주최: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삶/안/락 제 15대 총학생회 www.yonsei.ac.kr/~yslem/ feminist@yonsei.ac.kr / 2123-3645
- 장소후원: 40대 문과대 학생회

매체 기획회의

방향성 혹은 기조

-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적인 글쓰기, 여성주의 매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 여성주의에 대한 정보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 자극이 되는, 성찰의 지점들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잡지는 '마이너리티'의 시선에 의한, 마이너리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커다란 구성

- 이 달의 기획

: 그 달의 이슈가 되는 혹은 그 시점에 다루어야 하는 것들을 잡아서 기획으로 한다.

경험을 담은 읽기 쉬운 혹은 친숙한 글에서부터 논리적인 비평문까지 골고루~

때에 따라 대담이나 인터뷰, 감수성 테스트와 같은 형식이 들어 간다.

빨간펜 첨삭 형식도 가능하다

- 특집(월례 토론회)

: 매달 기획된 월례 토론회의 자료집이 될 부분이다. 월례 토론회에 (군사주의와 여성,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가족... 등등등이 가안으로 나온 상태) 맞는 내용의 글을 특집으로 실으면서 그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서평

: 책vs책의 형식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책 두권을 소개할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쁜책 까지 비교하면서 소개할 수도 있다.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서평을 하는 것이 주목적. 원생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
운 나사 이지... 요런 사람들이 써주면 좋지^^

- 미디어 비평

: 영화나 티비 프로그램, 드라마, 뉴스 머 이러한 매체들을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비평하는 것. 주제를 잡아서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해도 좋을 듯. 부디 질 높은 글들을 받기를 고대하며...

- 여성사

: 여성이 누락된 현재의 역사에 균열내기, 엄연히 존재했던 하지만 모르고 있는 여성 인물이라던가 중요한 사건이라던가 연재되면 좋을듯. 꾸름이나 술래 어떠하리오

- 만화

: 헤라가 연재하기로함. 16페이지 이내의 연재 만화. 가안으로 나온 것이 미래 양성평등의 시대에 살던 주인공이 빛에 떠밀려- 2003년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겪는 일들...

- (페미니스트)남성이 바라본 세상

: 콰이의 자기만의 방에 글들과 같은 글. 남성으로서 옷입기라던가 싱크대 이야기라던가...

- 화보

: 포토 에세이의 형식, 멋지구리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이미지글을 잘 넣으면 쉬어가는 멋진 페이지가 될 듯

- 총여 파트

: 단순 행사 소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가 드러나게

제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데이드리머와 같은 느낌이 나는 단어 물색중 배고픈 꿈도 좋다니깐--;

연세대학교에서 여성 교수의 채용을 바란다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세대에서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여교수 비율 관련 학생 요구안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36.3%이며 해가 갈수록 여성의 대학 진학은 늘고 있습니다. 전국 박사학위 소지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9%(1만4486명)를 차지하며, 대학 시간강사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4%(1만79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1%(사립대 16.1%, 국공립대 8.8%)에 불과하고,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뺀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8.8%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 평균(16.1%)에 못미치는 국공립대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보면 현재 세브란스 의료를 제외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여교수는 70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입니다. 이는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비율에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중 생활과학대학과 음악대학과 같이 여성 교수가 많은 단대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여교수는 31명으로 5% 미만에 불과합니다.

학부에서 여학생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에서 여학생 비율은 33.2%입니다. 하지만 법과대나 상경대 같은 단대의 경우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실정입니다. 법과대 여학생은 31.6%, 상경대는 29.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2003년 연세대 교수 채용에 법과대에 여성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협상한 이행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교수학생협의회에서 학교측은 올해 법대에서 여교수를 한 명 채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연대 법대 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과대에서는 19명중 단 한 명의 여성 교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 '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 '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대관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 권리와 평등을 얘기하는 남성 교수님들 사이에서 여성 교수와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수 사회에 있어서 교수로서 필요한 연구 업적이나 실력, 도덕성 등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교수 비율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보다 한 달여 앞서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립대보다 낮은 연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단과대별 전임 교원 성별 현황

(2003년 1학기)

대 학	교 수 비 율				학생비율
	총원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학생비율
문 과 대	105	14	91	13.3%	63.7%
상 경 대	76	0	76	0%	29.0%
이 과 대	83	5	78	3.6%	40.1%
공 과 대	165	3	162	1.8%	15.9%
신 과 대	6	1	5	16.6%	26.3%
사 회 과 학 대	39	3	36	7.6%	41.8%
법 과 대	18	0	18	0%	31.6%
음 악 대	26	13	13	50%	72.3%
생 활 과 학 대	30	26	4	86.6%	84.7%
교 과 대	23	3	20	13%	27.9%
교 목 실	5	0	5	0%	32.4%(의대)
대 학 원	27	1	26	3%	
국제학대학원	11	1	10	9%	
정 보 대 학 원	4	0	4	0%	36.1%(치대)
영 상 대 학 원	3	0	3	0%	
사회복지대학원	1	0	1	0%	97.6%(간대)
연합신학대학원	6	0	6	0%	
합계	628	70	558	11.1%	37.2%

- 교수비율은 교무처 제공 2003년 자료로서, 간대, 의대, 치대는 제외한 수치이다.
- 학생비율은 여학생처 홈페이지에 나온 2002년 수치이다.
- 생활과학대와 음악대를 제외했을 경우 여교수는 31명으로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불과하다.

여성 교수 채용 대책을 마련하라!

- 법과대 교수 채용 과정을 바라보며

법과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경대와 함께 여성 교수가 전혀 없는 단과대학입니다. 2002년까지 법과대학 여학생 비율이 31.6%에 이르고 있으며, 법학 전공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명의 법과대학 전임 교수들은 모두 남성 교수들입니다. 2003년 연세대학교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법과대학에서는 민법 친족상속법 분야로 교수를 한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대 교수 채용에 여성 교수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1950년 법학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교수가 한 명도 없던 법과대에 여성 교수가 최초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생활과학대와 음악대를 제외할 경우 전체 교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는 단과대와 학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심한 교수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측에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가 2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안은 학교 본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과대 교수채용 심사에서 법과대측은 지원한 두 여성 교수 모두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대 교수 정원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결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채용을 안 하기로 한 법과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지원자중 한 여성 교수가 개인 연구 업적과 외부 추천 결과, 학과 교수 인터뷰 등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내부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채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교수 채용에 있어서 해당 전공 교수들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전공 분야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강의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같은 전공 교수들의 평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지, 성별이나 나이, 불합리한 편견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법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법과대에서는 자체 심사 결과 지원한 여성 교수가 교수로서 전혀 손색없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5명의 법과대 교수들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존의 평가와는 상반되게 부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교수로서 적절하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공개되지 않고 판단 근거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투표 과정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수 채용은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학과와 전공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현직 교수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교수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남성 교수가 대부분인 대학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법과대 채용 과정은 여성 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해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교지만 이미 지난 5월에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를 2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과대 교수 채용 과정은 학교 본부나 교육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단과대나 학과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이러한 여성교수채용목표제가 아무런 실효성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학 사회의 남성중심성은 교수라는 지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총여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연세대학교는 교수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 교수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교수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올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법과대에서 정당한 판단과정을 거쳐서 여성 교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법과대측과 법대 교수님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2003년 6월 19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잡지 3월호

특지		내용	
특집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도비라 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오갱끼 데스까 in cyber space?	
		연정공 소개	
		연세 정보 공유 게시판!!!	
		사이버에서 가능성 찾기.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 언니네를 바탕으로 WOW, 여성들만의 데일링 리스트 등	
기획	반 문화 反 문화	대학 공동체가 상실한 정체성의 기원	
		나는 그곳에 있었을까?	
		KEYWORD로 본 반문화-술/자/리 그리고 깃/발	
고정	서평	[여성학 서평] 성적 욕망 vs. 성적 폭력, 벗어나기와 함께하기	
	미디어비평	[여성주의 미디어비평]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세가지 것들	
	여성사	[여성사] 왜 여성사인가?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자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성폭력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1] 나의 변태 선생 이야기	
	만화	W	

DAYDREAM 4월호

특지		내용	청탁	비고
기획	여성의 노동	INTRO : 왜 여성의 노동을 이야기하는가	찰박한 글(여성노동대토론회, 메이데이 여/성 자료집)	여광, 몽이 4월 1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 주5일근무제, 생리휴가...	쪽 2
		care work / 성애화 / 친절과 미소의 강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흐름 3
		여성과 일, 일, 일	선뜻 내밀어지지 않는, 그러나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그녀의 뺨그릇	새 4-1
			나의 좌충우돌 사회생활 경험기	샤리 4-2
			돈쓰기	술래 4-3
특집	반전과 여성	INTRO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늘 5
		현재의 전쟁 담론에 대한 비판	담론에서의 '여성 배제', '어머니', '여성=평화'	늘 6
		내가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던 날	나비 7
			전쟁에 대한 생각-에세이	노래 8
		여성주의 반전 토론회	발제문 1-4	쪽 9-1, 2, 3, 4
		영화 감상문	영화 소개글	10-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혹은 아직도 말할 수 없다?	몽이 10-2
고정	서평	전쟁, 국가, 여성	나사	11
	미디어비평	드라마에서 커리어우먼 이미지 / 환상	향가	12
	여성사	화장의 역사	꾸름	13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자 벗어던지기	과이	14
	성폭력	즐거운 캐미니스트 이갈의 반성폭력 이야기	이갈	15
독자글	daydream을 읽고	daydream 감상	몽이	16
중간 삽입글	마초맨 반대 서명	나는 옹원가 '마초맨'을 부르지 않습니다		17
	화장실 비상벨 글	성폭력 예방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한 Q & A		18
	교수성폭력 광고글	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19
쿠폰	또오래 쿠폰			

데이드림3호

목지		내용	비고
기획?	상반기 정리 (가)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종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1
	못다한이야기 (가)	(주한미군)	2
		(기간제여교사)	3
		교수 성폭력 토론회, before & after	4
특집?	그 '진보' (가)	진보의 탈을 뒤집어쓴 '그들'	5
			6
		범대위 유감	7
고정	서평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8
	미디어비평	어머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9
	여성사		10
	남성이 바라본 세상		11
	성폭력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12
서명	마초맨		13
쿠폰	쿠폰		14

